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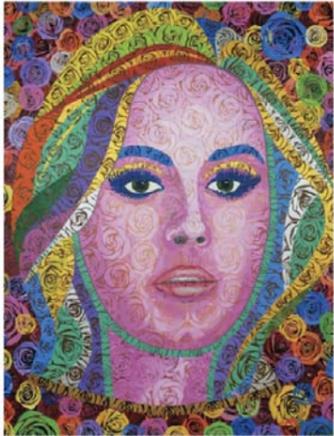
# 명곡으로 감동 준 팝스타의 '빛나는 순간'

전주시에 재직중인 임채원씨가 '채소밭'이라는 작가명으로 현대미술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팝스타 14인을 그린 이번 개인전은 23일부터 28일까지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 채소밭은 그림 그리는 꿈을 물어둔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공무원이다. 2017년 5월의 어느 날, 52세의 나이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던 꿈을 문득 다시 꺼내보게 되었다. 서점에서 '그림 그리기 기본'이라는 책자를 구입해 A4용지에 스케치를 해보며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해 9월, 우연한 계기로 개업하는 카페 벽면 전체에 벽화를 그린 후 어린이집, 식당, 한옥마을 담장 등 벽화를 그려왔다.

2018년 11월, 작가는 더 이상 벽화가 아닌 그림을 옆에 두고 원할 때마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즈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가 붓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룹 퀸의 리드싱어 'Freddie Mercury'를 모델로 최초로 캔버스 그림을 그렸다. 그 후 'Beatles', 'Michael Jackson' 등을 연이어 그리며, 자연스럽게 팝스타를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평소, '다름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채소밭 작가는 2019년 초 일반미



술 작품과는 다른 본인만의 색깔의 그림을 고민하게 되고, '모양, 형태, 글자, 선, 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Shape Art(쉐이프아트)' 기법을 만들어냈다. 기법을 적용한 첫 번째 작품은 장미꽃만으로 그린 팝스타 'Adele', 두 번째 작품 팝스타 레이디가가 또한 영문 이니셜 'LadyGaga'만으로 완성하며 웨일아트라

채소밭, 현대미술 첫 개인전  
23일부터 28일까지  
전통문화전당 3층서 전시

팝스타 14명 소재  
다채로운 형태로 표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림 하나하나에 작품 설명

는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펼쳐 나간다. 작가 채소밭은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에 난해하고 복잡한 현대미술에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 그림 속에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뜻을 숨겨놓고 작가의 설명을 봐야만 이해하는 어렵고 난해한 작품보다는 그림을 모르는 다수의 대중이 작품을 접하는 즉시 바로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회는 대중에게 주목받은 명곡으로 감동을 준 팝스타 14명을 선정해 그들의 가장 빛났던 한순간을 작가만의 'Shape Art' 기법을 통해 그린 첫 번째 개인전이다. 장미꽃, 영문이니셜, 도형, 라인, 면 등 화려한 색상의 다채로운 형태로, 굳이 설명이 필요없이 대중과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14점의 그림 하나하나에 작품설명, 팝스타 소개로 '친절한 채소밭'을 지향하며 전시회를 구성했다.

작가는 작품 속 각 팝스타의 주요 노래 20여곡을 골라 그들의 숨결을 느끼며 수십 번 들으며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을 완성할 즈음, 그들은 작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 작가 '채소밭'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 또한 작품 속 팝스타와 시공을 초월한 교감으로 마치 여행처럼 여제 보다 오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길 기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누가 100년이 지나도 이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 세계적인 팝스타 Lady Gaga의 노래 'Always Rememer Us This Way'가 개인전의 전시명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영원히 바라며, 그들의 가장 찬란했던 모습을 작가 채소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장은성 기자

##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선조들의 품격 있는 문화이야기

국립민속국악원

24일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24일 오전 11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국악콘서트 다담(문화가 있는 날-수요일)을 개최한다.

이날 다담은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를 초청해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를 주제로 선조들의 투철한 기록정신과 품격 있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부에서는 의규장각 의궤를 주제로 병인양요 당시 의규장각 의궤 프랑스로 약탈된 후 2011년 반환받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2부에서는 조선왕실 혼례문화 가례(嘉禮)를 주제로 의궤의 용례 및 왕실 혼례 기록인 가례도감의궤에 따라 조선왕실의 혼례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전북가야금연주단이 출연해 소파도·행운의 열매와 가야금으로 신명금포터령, 축적고향(香) 등 감미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관람은 사전예약제(선착순 100명)로 진행하며, 전화(063-620-2324)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능하다.

한편 왕기석 원장은 "공연 전 참여예배교육과 관람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공연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한옥 품바 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이곳에서 꿈이 열리다  
전주대학교

수시 원서접수 기간  
2020. 9. 23. (수) 09:00 ~  
2020. 9. 28. (월) 18:00

전주대학교 입학처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전주대학교 입학처  
학생부종합전형 Tel 063 220 3233 Fax 063 220 3238  
학생부교과전형 Tel 063 220 2700 Fax 063 220 2658  
입학홈페이지 www.jj.ac.kr/jphak \*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참조.

전주대학교

##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김제문화예술회관서 내달 3일 'The Best 베토벤' 음악회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7월 3일 오후 7시 30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The Best 베토벤" 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클래식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베토벤'이다. 악성(樂聲)으로 불리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이미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는 베토벤 열기로 뜨겁다. 이번 연주회는 2020년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일환으로 (사)드림필 김제원의 지휘로 '베토벤 에코몬트 서곡', '베토벤 심포니 2번 교향곡 1악장', '터키 행진곡', '베토벤 심포니 5번 교향곡 1악장'을 드림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바이올리니스트 정은영, 소프라노 문자희, 피아니스트 오정성이 협연한다. 이번 연주회는 관중 대면 콘서트로서 마스크



를 쓰지 않는 관람객의 입장은 제한하고, 공연 진행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모든 관객은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8세 아동부터 관람할 수 있다. 관람권 예매는 23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배부한다.

/김제=곽태기 기자

## 전주시, 내달부터 송천·아중·건지·평화·서신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전주시역 5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송천·아중·건지·평화·서신도서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래 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실시할 계획이다. 송천도서관의 경우 '팬데믹 시대, 소통의 인문학'을 주제로 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책을 통해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

한 아동도서관에서는 '그림책으로 보는 페미니즘~ 가치! 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페미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강연과 전시회 관람 시간으로 진행한다. 건지도서관은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진북의 고대문화 복원 프로젝트'를 주제로 가야금화유진과 후백제 문화를 알 수 있는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또 평화도서관의 경우 여행, 자유를 사유하다라는 사업명으로 신타이그 순례길, 알프스 트레킹, 아프리카 자연여행 등을 랜선으로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서신도서관에서는 주제독서를 함께 읽고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차곡차곡 명작 회독하기'도 운영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남원시, 25종 관광기념품 선정... 23일부터 판매

남원시는 총 25종의 남원시 관광기념품을 선정하고 오는 23일부터 관광무원과 춘향테마파크에 있는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지난 6월 9일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의회(대표자 윤영복), 명인공방(대표자 안은순)은 관광기념품 시범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남원시 대표 관광지인 관광무원 기념품 상가 명인공방과 춘향테마파크의 기념품 상가 진자배기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상품은 남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향주머니, 남원명소 마그넷 세트, 디자인 부채, 책갈피 시리즈 등 공예품 뿐만 아니라, 우드 코스터, 손거울 등 디자인 상품 등을 다양하게 준비해 관광객에게 살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범 판매를 통해 관광객 선호도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2021년 관광기념품을 정식 판매할 계획이다.



안동준 관광진흥계장은 "남원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바로 남원시 관광기념품 판매점이라며, 이곳에서는 남원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재미를 주는 것은 물론, 남원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